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3파전 돌입”

임직원, 주식깃기 운동 전개 ... 강문석 사장과 유충식 부회장 성토도

“외부세력은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를 버려라.”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제약의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이 경영복귀를 꾀하고 있는 둘째 아들 강문석 전 수석무역 부회장 측과 유충식 전 동아제약 부회장 측을 경영권 침탈과 적대적 M&A을 시도하려는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회사주식 매입을 통해 회사 지키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동아제약 임직원 700여명은 3월15일 서울 용두동 본사에 모여 <동아제약 발전을 생각하는 임직원 결의대회>를 갖고 “74년간 제약업계를 선도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던 자랑스러운 일터가 최근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외부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작금의 사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직장은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경영권 분쟁사태의 중심에 (동아제약에) 45년간 재직하고 12년간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던 유충식 전 부회장과 강신호 회장의 아들이자 2년간 동아제약을 경영했던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이제라도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 몸담았던 회사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충식 전 부회장은 강문석 전 사장의 경영능력을 문제 삼는데 앞장서온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강문석 전 사장과 손을 잡고 심지어 지인관계에 있는 한국알콜산업 등 외부세력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회사를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유충식 전 부회장은 회사장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도 회사운영의 주체 중 하나이며 회사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라며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일터를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를 위해 직원 모두 <우리 회사 주식 깃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15>